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 내기

‘중용’에서는 도(道)를 떠나지 않으려면 남이 보고 듣지 않는 곳에서도 늘 두려움(恐懼)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두려움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두려움이라면, ‘중용’의 두려움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다. 전자는 두려움의 대상에 주목하는 말이고 후자는 두려움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두려움의 대상에 가 있으면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개의 두려움이 알지 못하는 존재, 가 보지 않은 길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중’이라는 수식어가 말해 주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까지 인류가 알지 못하던 존재다. 앞으로 이 확산이 수그려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뒤에 놓인 사회적·경제적 난관으로 가득 찬 길은 우리는 아직 가 보지 못했다. 두려움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까? 만약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페스트(흑사병) 장례기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의 의학·보건 지식은 매우 발달했고,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역시 신속하고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두려움에 기대어 특정 집단이나 지역 혹은 정치적 상대를 마녀사냥 하듯이 비난하고 낙인찍는다면, 그리

고 지식 전달의 매체들이 두려움을 왜곡하고 증폭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이유도 모르고 죽어 갔던 페스트 환자들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신중하게 준비하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실상과 허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을 일이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를 완전히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 끝나게 될까? 이것이 야기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시련을 다 겪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질까?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전 지구구를 활발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과학기술의 힘이다. 인류의 교통수단이 퇴보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국책’에서 유래한 ‘상궁지조’(傷弓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번 화살을 맞아 본 새는 활시위 소리만 듣고도 높이 날아오른다는 말이다. 하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증대될 것이다. 회피

와 모면은 두려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의 자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껴 가고 있다. 스스로 격리한다던 자신의 건강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함께 감염병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각자의 일상 역시 회복될 수 없다. 국가적인 재난을 났을 때 큰 주가 할 일이 ‘공구수성’(恐懼修省)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재난이 하늘의 징벌이라는 믿음이 통용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성찰은 재난을 대하는 자세로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각자가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면 4월 6일 초·중·고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나마 이도 낙관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일 뿐이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에 의해 다시금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더 오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두려움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또 닥쳐올 두려움들을 공동체로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 내는 두 주가 되기를 소망한다.

경제이야기



김성익 광주 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곰의 덫’을 극복하라!

고 거침없이 휘두른 아이언 샷은 홀 컵을 향해 맹렬히 직진한다. 꺾리리의 합성과 함께 물과 모래 합정을 어렵사리 건너간 불은 홀 컵 2m 지점에 안착, 가볍게 바디를 뉘는다. 순위가 4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하는 순간이다.

지난 3월 1일 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 안에 갇혀 칩거 중이다.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 준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입성재 선수.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혼다클래식, 공포의 ‘베어 트랩’(Bear trap-곰의 덫-15-17번홀)에서 두 개의 바디를 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PGA 첫 우승을 일궈 내며 15억 원을 거머쥔 통쾌한 장면이다.

혼다클래식이 열린 팜비치 팜프장의 ‘베어 트랩’은 워낙 어려워, 리스크를 감수하는 공격적인 샷에 대하여 성공에 따른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실패하면 곰이 파놓은 트랩에 걸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공포에 떠는 홀이다.

사실 ‘베어 트랩’은 차트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산 가격을 전망하는 금융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지지선을 뚫고 하락세를 보일 때, 일부 성급한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을

염려하여 손절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장이 상승세로 반전하게 될 경우, 이 성급한 투자자들은 ‘베어 트랩’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신음 중이다. 당초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염병 발생 사례를 감안해 볼 때 경기는 ‘V자형’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예상 밖으로 강한 전염력을 보여며 급기야 WHO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월가의 닥터 돌(Dr. doom, 경기 비관론자)들을 필두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염병 발생 사례와는 다른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게 ‘바이러스 위기’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자포자기적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지금은 비관론자들의 논리를 귀담아듣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은 작은 충격에서 시작하더라도 언론과 투자자들의 ‘비관적 군집 행동’이 더해지면서 증폭되기 마련이다.

경제 주체들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뜻이다.

희망 섞인 예를 들어 보자. 만약 한두 달 뒤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전격 개발된다면? 필자 지금의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 전조였다’기보다는 ‘베어 트랩’에 가까울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경기는 급반등(quick bounce)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DNA를 가졌다. 영호남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 광주시가 대구시를 위해 확진 환자를 데려와 진료해 준 ‘달빛 동맹’(달 구별+빛고을),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시로 달려간 전국의 의료진, 세계가 극한한 우리나라의 공중 보건 능력, 대규모 추경 편성, 기존 급리 인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초강력 경제 대책 등등,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노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중소 상공인들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은 ‘절망의 바이러스’다. 국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시라. 22살에 PGA를 정복한 임성재 선수의 용기를 담아 곰의 아가리에 돌직구를 날리시라. 위기는 극복되고 열매는 달콤할 것이다.

기 고

‘대표자’라는 단어



김성익 광주 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본질적 의미를 쉽게 잊고 산다. ‘친구’는 그냥 ‘친구’인 것이다. 그러나 잊고 있었지만 ‘친구’는 “나의 슬픔을 그의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표(자)’란 어떤 말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대표란 ‘조직이나 집단을 대신하여 일을 하거나 생각을 드러냄’이고, 대표자란 ‘여러 사람이나 단체, 지역을 대신하여 그 의사(意圖)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의원’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찾아 보았다. 대통령은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고, 의원은 ‘합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 사람’이다.

곧 쉽게 풀어서 말하면 대표(자)는 ‘국민(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지역)를 위해 중요한 사항,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리기 위해서는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요구, 국민의 괴로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나라의 진정한 국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정당을 살펴보자. 정당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주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단언했던 G. 라이프홀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 국가에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자 민주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하며, 대중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지도자나 정당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생

각을 할까? 안타깝게도 “당리당략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며, 상대방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전을 펼치는 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온갖 꾀수를 부리는 집단”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자”쯤이 아닐까?

올해는 경자년 흰 쥐띠 해이다. 흰 쥐는 쥐 중의 우두머리로 매우 지혜롭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고 한다. ‘퐁유’와 희망, 기쁨’을 상징하는 쥐의 해 2020년 경자년 4월에는 진정한 대표(자) 곧, ‘국민의 친구’ ‘진심으로 국민의 요구와 국익에 관심을 갖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정당)’이 선출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신뢰와 참여, 희망과 화합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社 說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는 시설 반드시 엄단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도 광주 지역 상당수 교회와 유증업소들이 지난 주말 예배와 영업을 또다시 강행했다고 한다.

법규민적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무색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튿날인 22일 광주 지역 개신교회 1451곳 중 17.6%인 256곳이 다수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타는 주말’을 맞은 유흥시설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는커녕 방역 지침조차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다. 21일 밤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주점들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술

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서구 지역 클럽의 경우 200여 명의 고객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손으로 짤 정도였고 착용을 권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열 사람과 1~2m 거리 유지, 출입자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행정 명령을 발동해 집합을 금지하고 이마저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집단 감염 우려에도 이처럼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제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공동체 무너진다

코로나19는 빈곤을 과거 일인 듯 있고 있던 우리 사회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평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재난의 맨 앞자리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엔 감염의 두려움보다는 생계의 다급함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기 전에 돈이 없어 죽겠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고단함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위태로움도 외면할 수 없다. 어느 외국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허상을 버려라. 전염병은 쫓겨나서 위험 속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한다.” 그렇다.

마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수당)’ 도입이 이번 주 초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찬반 이견이 있었지만 당정이 결국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도 4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을 제안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현재 그 대상과 지급 방식 및 지원 규모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한국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의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비교된다. 그러나 금융 위기였던 당시에 비해 이번은 전 세계 실물경제 붕괴로 더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다. 특히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겠다.

無 等 鼓

“빛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했다는 83세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20여 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최근 해외홍보문화원이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 ‘참 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의 도입부다. 지난 17일 올라진 4분11초 길이의 이 홍보 영상은 6일이 지난 현재 국내외에서 조회 수 293만4050회를 넘겼고, 1만3880여 개의 공감하는 댓글이 달

행동들이 코로나19를 보는 녹이듯 하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몇 장의 마스크를 이웃들에게 나눠 주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마음이 담긴 물품들을 보내는 아름다운 행동들이다. 열 사람이 한 손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십사람반’(十人飯)의 미덕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정에서 내건 플래카드의 응원 메시지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일일장 속에서도 월곡시장에 도다리속국 내을 진동합니다” “수완 양버들에 연두빛깔 코앞 돌 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봄기운을 북돋아 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긍정적인 댓글을 비롯해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릴레이 응원 메시지는 파문(波紋)처럼 주변을 변화시킨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타심’이 아닐까 싶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흥얼거리려 본다.

/송기룡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우이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